

1920년대 자기계발 문화와 기독교

- 프랭클린 『자서전』 번역을 중심으로*

이숙진 (성공회대학교)

I. 들어가는 말

II. 기독교사에 나타난 자기계발의 계보

1. 서구 기독교의 자기계발 전통
2. 한국 기독교의 자기계발의 신앙

III. 프랭클린 자서전 출현의 사회적 맥락과 의미

1. 18세기말 미국에서의 프랭클린 자서전의 의미와 효과
2. 20세기 초 식민지 조선에서의 『자서전』 번역의 의미와 효과

I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17.38.08>

*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2-S1A5B5A02-023664]

• ABSTRACT •

Self-Help Culture and Protestantism in 1920s Korea: A Focus on the
Translation of Autobiography of Benjamin Franklin

Lee, Sook-jin(Sungkonghoe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meanings and effects of translation of the *Autobiography* of Benjamin Franklin, one of the most popular self-help books, in Korea in the 1920s. First, the paper examines the genealogy of self-help tradition in Christianity as well as the history of the self-help movement in modern Korea. Second, the paper investigates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social meaning of emergence of the *Autobiography* of Benjamin Franklin in colonial America of the 18th century. Third, the paper explores the social context and meaning of the translation of the *Autobiography* of Benjamin Franklin in colonial Korea of the 1920s. This exploration of self-help discourse and self-help culture in Korea in the 1920s could be a channel for critical review of self-help boom in recent Korean protestantism.

Key words: Self-Help Culture, self-help discourse, Protestantism, Autobiography of Benjamin Franklin

I. 들어가는 말

1990년대부터 본격화된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화는 우리 삶의 양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다. 경제영역에서의 ‘자유 시장’ 논리는 삶의 전 영역에까지 확장되어 무한경쟁의 에토스를 고착시켰다. 성공과 실패는 바로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자기계발의 신화는 자기계발 산업의 유희없는 호황으로 이어졌다.

전 지구적 차원으로 확산되고 있는 자기계발문화에 대한 연구가 국내 외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자기계발 문화에 대한 서구학계의 관점은 후기 푸코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통치성 학파’와 기든스의 문제의식을 수용한 ‘성찰성 학파’로 대별된다.¹⁾ 전자는 자기계발 문화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반면, 후자는 자기계발 문화의 긍정적 측면에 강조점을 둔다. 통치성학파가 ‘신자유주의 통치성’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자기계발 문화와 그에 의해 주도되는 자기계발 주체의 특성에 주목한다면, 성찰성 학파는 힐링을 포함하는 실용적인 자조의 지침들이 능동적 주체를 이끄는 것으로 평가한다. 이 두 학파의 관점은 강조점을 달리 하고 있지만 한국의 자기계발 문화를 분석하는데 중요한 통찰력을 줄 수 있다.

오늘날 우리사회의 유별난 자기계발 열풍은 종교공간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현재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종교공동체들은 세속적 자기계발 프로

1) Nikolas Rose, *Governing the Soul: The Shaping of the Private Self*,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0); Nikolas Rose, *Inventing our Selves: Psychology, Power, and Personhoo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Christopher Lasch, *The Culture of Narcissism: American life in an age of diminishing expectations*, 최경도, 『나르시시즘의 문화』(서울: 문학과지성사, 1989); Micki McGee, *Self-Help, Inc.: Makeover Culture in American Life*, 김상화, 『자기계발의 뒷』(서울: 모요사, 2011) 등이 있다; 일본의 경우 최근에 나온 대표적 저서로는 宮崎 學, 『自己啓發病 社會』(祥伝社, 2012)가 있다.

그램을 차용하거나 그것을 신앙적 언어나 의례로 변안하면서 교세 성장을 꾀하고 있다. 또한 종교적 색채가 강한 자기계발서적들은 장기불황의 출판시장 속에서도 높은 판매고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종교와 자기계발 문화의 친화성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그 동안 국내에서는 종교공간의 자기계발 열풍이 소비자본주의와 깊이 연동되어 있음을 주목하고 자기계발의 대중문화가 종교공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종교적 주체화 과정에 어떠한 방식으로 개입하고 있는지를 규명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즉 자기계발 열풍을 새로운 종교현상의 하나로 보고 그것이 지닌 종교적·사회적 함의를 추적하는 연구,²⁾ 자기계발의 메시지가 강한 신앙서적이 여성교인의 주체화에 개입하는 방식을 추적하는 연구,³⁾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논리와 최근 유행하는 불교수행의 논리가 어떠한 공모관계에 있는가를 밝히는 연구 등이 나왔다.⁴⁾ 이러한 일련의 연구는 기본적으로 ‘통치성 학파’의 문제의식을 수용하여 이 시대의 주체특성을 ‘자기계발의 주체’이자 ‘탈진한 자아’로 규정하는 동시에, 이러한 ‘지친 자아’를 양산하는 신자유주의 통치성과 자기계발문화의 공모관계에 대한 비판적 탐구이다.

그러나 더 나은 자기를 꿈꾸며 자신의 잠재력을 계발하려는 욕망이나 더 나은 삶의 조건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그러한 열망이 항상 이기주의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자기계발에 대한 욕망은 인간의 원초적 본능이자 창조의 추동력일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러한 열망이 더 나은 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도 있다.

2) 이숙진, “자기계발이라는 이름의 종교: 코칭프로그램의 자기테크놀로지를 중심으로” 『종교문화비평』 25(2014), 242-285

3) 이숙진, “신자유주의시대 한국기독교의 자기계발담론: 여성교인의 주체화양식을 중심으로” 『종교연구』 60(2010), 119-148

4) 이숙진, “최근 한국불교 수행공간에 나타난 자기 테크놀로지: 자기계발적 주체의 형성을 중심으로”, 『원불교 사상과 종교문화』 72(2017), 289-323.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신자유주의 통치성이 작동하기 이전, 즉 이 땅에 처음 수용된 근대적 자기계발 문화의 특성을 주목한다. 구체적으로는 192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 『프랭클린 자서전』(이하 『자서전』)이 자기계발 서적의 하나로 번역되는 맥락과 그 의미를 당대 기독교의 사회적 존재방식과 관련하여 규명한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 먼저 기독교의 역사에 나타난 자기계발의 계보와 근현대 한국사회의 자기계발 문화를 검토한다. 그리고 18세기 미국사회에서 『자서전』이 어떠한 사회문화적 함의가 있는지를 당시 미국 기독교의 성격과 관련하여 살핀다. 다음에는 192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 『자서전』이 기독교 지식인에 의해 번역되는 과정과 그 의미를 ‘자조론’와 ‘공조론’의 관계 구도 속에서 탐색한다. 이러한 작업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신앙공간에서 불고 있는 자기계발 열풍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I. 기독교사에 나타난 자기계발의 계보

1. 서구 기독교의 자기계발 전통

모든 종교는 자기계발 담론의 자장 속에 있다. 고전 종교전통은 척박한 현실의 고통을 극복하고 영적인 각성을 위하여 다양한 방식의 자기계발의 장치를 고안해왔다. 기독교 역시 자기계발의 유구한 전통이 있다. 초대교회는 세상의 죄로부터 거리두기 위하여 스스로의 내면에 집중하도록 권면하는 공동체가 있었다. 중세교회의 수도원 규율 역시 신앙적 차원의 자기계발이라는 목표에 다다르기 위한 장치다. 한편에서는 성서와 교회 전통을 통해 구성된 도덕적 항목에 도달하기 위한 개개인의 치열한 노력이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목 권력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신앙인들의 행위가 강제되어 왔다. 바로 이 점에 대해 미셸 푸코는 중세 교회의 주체화 양식을 율법에 대한 ‘주체의 복종과 욕망의 해석학’으로 보았다.⁵⁾

중세교회의 자기계발담론은 도덕적 코드의 준수와 절대적 복종으로 구성되었다.

오늘날 세속적 성공주의와 연동된 자기계발 문화의 초석은 깔뱅주의(Calvinism)에 의해 마련되었다는 것이 통념이다.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은 깔뱅주의의 교리, 요컨대 이중예정설과 소명설이 근대 자본주의의 형성과 연동되어있음을 설파하고 있다. 깔뱅주의는 믿는 자들의 할 일은 스스로의 구원을 확신하고 자신의 직업을 소명(calling)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는 것임을 일깨웠다. 소명의식에 따라 의무를 다하면 부를 축적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노동을 천시하고 부의 축적에 대해 소극적이고 부정적 태도를 취했던 중세 가톨릭교회와 달리 깔뱅주의는 자본주의 정신과 친화성(affinity)을 보이는 에토스를 제 공하였다. 막스 베버는 깔뱅주의의 이러한 윤리를 중세 가톨릭 수도원의 ‘내세적 금욕주의’와 구별하여 ‘현세적 금욕주의’(inner-worldly asceticism)라고 불렀는데,⁶⁾ 이는 근대적 의미의 자기계발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깔뱅주의에 근거한 자기계발은 18세기 미국청교도 사회에서 보다 명확한 형태로 나타났다. 초기 자조담론의 생산과 유통에 큰 공헌을 했던 벤자민 프랭클린은 물질적 축적과 세속적 성공을 이루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자기 수양의 한 과정으로 이해하였다.

20세기 중반이 되면 미국사회에서는 사회적 성공은 적극적 사고방식과 마음에 달려 있다는 메시지를 담은 일련의 자기계발서적들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서적들은 대개 기독교 신앙과 접목되어, 급변한 산업회사사회로 인해 상실감과 소외감으로 표류하던 개인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제

5) Michel Foucault, *Technologies of the self*, 이희원, 『자기의 테크놀로지』 (서울: 동문선, 1997), 36.

6) Max Weber,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die protestantischen Sekten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김덕영,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서울: 도서출판 길, 2010).

공하고 현실적응력을 함양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요컨대 ‘적극적 사고’(positive thinking)는 자기계발의 새로운 중심축을 형성한 것이다.⁷⁾

‘긍정적 사고’로도 번역되는 이러한 사고방식의 선구자는 노만 빈센트 필이다. 그는 『확신에 찬 삶으로의 안내』와 『적극적 사고의 힘』 등을 통해 정신건강과 행복에 이르는 수단으로서 ‘적극적 신앙’을 강조한다. 그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하나님과 당신 자신에 대한 믿음을 통해 당신은 스스로 원하는 것을 당신의 삶으로 만들 수 있다.”⁸⁾ 그의 신학은 비즈니스 세계의 스트레스와 분주함 그리고 교외 거주 생활의 불안과 긴장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화와 자신만만한 생활’을 약속하는 신앙으로 평가되기도 한다.⁹⁾

노만 빈센트 필의 이러한 사고방식을 교회성장에 성공적으로 적용시킨 목회자는 로버트 쉐러(Robert Schuller)이다. 그는 성공, 봉사, 삶의 기적의 비결, 자존심의 회복, 삶의 아름다움, 진실함의 의미, 정직함, 바람직한 경제생활 등을 설교의 주된 소재로 삼았는데 이러한 모든 덕목의 근저에는 ‘적극적 사고방식’이 깔려 있다.¹⁰⁾

노만 빈센트 필과 로버트 쉐러의 적극적 사고방식을 더욱 단순화시킨 이는 조엘 오스틴(Joel Osteen)이다. 일종의 자기계발의 신앙적 버전인

7) 노만 빈센트 필과 로버트 쉐러의 적극적 사고(positive thinking)는 에스트(est: 자기발견과 자기실현을 위한 체계적 훈련 방법)의 창설자인 Werner Erhardt는 적극적 정서적 태도(positive mental attitude), 신오순절파에서는 적극적 고백(positive confession)과 유사하다. 이 개념에는 낙관주의가 깔려 있다. Horton, Michael S.(1998) *Made in America: The Shaping of Modern American Evangelicalism*, Wipf & Stock Publishers, 김재영, 『미국계 복음주의를 경계하라』(서울: 나침반출판사, 2001) 271-272.

8) Norman Vincent Peale, *The power of Positive Thinking*, 이갑만 역, 『긍정적 사고방식: 어떻게 자신의 행복을 창조할 것인가』(서울: 세종서적, 2014)

9) 김홍수(1998), “긍정적인 밝은 신앙으로: 김선도 목사의 설교 유형”, 『목원대학교논문집』 34(1998), 60.

10) 정병관, 『복음혁명을 주도하는 세계 17대교회』(서울: 생명의말씀사, 2005), 78

『긍정의 힘』(Your Best Life Now)¹¹⁾이라는 책을 내었는데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말하는 성공적인 삶의 지침들과 흡사한 7가지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즉 “비전을 키우라, 강한 자아상을 일구라, 생각과 말의 힘을 발견하라,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라, 역경을 통해 강점을 찾으라, 베푸는 삶의 즐거움을 누리라, 행복을 선택하라”의 7지침이다. 그의 책과 설교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신의 축복 및 구원과 연결시키는 ‘변영의 복음’을 특징으로 하며 성공을 위한 구체적 방법이 강조된다. 즉 그에게 성공이란 ‘끌어당김의 법칙’ 같은 것을 기초로 정신을 재프로그래밍 하여 긍정적 이미지를 만들어냄으로써 이루어진다.

릭 워렌(Rick Warren)의 경우도 큰 틀에서 보면 긍정의 복음을 강조한다. 그의 『목적이 이끄는 삶』에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그 책은 독자들이 하여금 자기 자신을 관찰하여 현재의 자기상태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행동계획을 기록하면서 매일 자기 삶을 돌아보고 묵상하고 자기의 발전 과정을 일기처럼 기록하기를 권장한다. 자신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SHAPE”를 제시한다. SHAPE란 Spiritual Gifts, Heart, Abilities, Personality, Experiences이라고 하는 여섯 가지 맞춤형 능력의 조합이다. 워렌은 이 여섯 자기 능력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능력 또는 어떤 개인적인 경험을 교회를 위해 사용할 수 있을까”를 진단할 것을 독자들에게 권고한다.¹²⁾

이외에도 수많은 기독교 공간에서는 적극적 사고, 긍정적 사고, 변영의 복음에 근거한 교회성장을 추구하면서 신자유주의 시대의 경쟁 논리와 맞물려 자기계발 문화를 생산, 유통하고 있다.

11) Joel Osteen, *Your best life now: 7 steps to living at your full potential*, 엔터스 라이프, 『긍정의 힘』(서울: 두란노, 2005).

12) Rick Warren, *The Purpose Driven Life inspiration for the purpose*, 고성삼, 『목적이 이끄는 삶』(서울: 디모데, 2004), 401.

2. 한국 기독교의 자기계발의 신앙

미국 선교사의 선교 활동을 통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한국 개신교는 초기부터 미국 교회의 지대한 영향을 받아 왔다. 개신교의 신앙에서부터 신학, 의례, 조직 등에 이르기까지 미국교회의 영향은 매우 크다. 1970-80년대 한국 개신교를 특징짓는 폭발적인 교회성장은 물론이고, 한국 교회에서 나타나는 자기계발 문화 역시 미국 개신교의 영향을 받았다. 교회성장론과 관련하여 한국교회에 수입된 것이 앞서 본 ‘적극적 사고’인데 이것이 바로 한국 교회의 자기계발 문화의 출발점이 되었다.

이를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은 1970년대의 순복음교회와 1980년대의 광림교회다. 조용기 목사의 설교는 20세기 초부터 미국 남부 애팔라치아(1896), 캔자스 주의 토피카(1901), 로스앤젤레스 아주사(1906)에서 시작된 오순절 교회의 전형적인 설교를 따르고 있다. 중생, 성령세례, 신유, 재림을 강조하는 오순절 운동의 맥락을 강조하면서도¹³⁾ 100%의 확신과 헌신에 기초한 ‘적극적 사고’를 매우 강조하였다. 광림교회의 김선도 목사는 로버트 슐러의 여러 저서를 번역하여 한국 교회에 소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적극적 사고방식을 목회에 적용하였다.¹⁴⁾ “성공에 이르는 용기” “성공의 열매를 맺자” “무궁한 힘을 개발하라” “적극적 신앙을 발전시키라” “적극적 실천의 위력” “영적인 경건과 성공자” 등의 설교제목이 지시하듯 그는 철저한 긍정적 사고와 적극적 신앙을 강조하였다.¹⁵⁾

그러면 이러한 자기계발 담론과 한국교회의 역사적 전개는 어떤 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어떤 변화 양상을 보여왔는가? 해방 후 한국교회는 현

13) 김세광, “조용기 목사의 설교 세계: 삼박지구원, 오중복음에 문혀버린 역사”, 『한국교회 16인의 설교를 말한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61.

14) 위의 책, 75.

15) 2001년 김선도목사의 은퇴 기념으로 발행된 12권의 설교집 중 한권에 수록된 설교의 제목들이다. 위의 책, 75.

세중심의 기복신앙이 산업화시대의 돌진적 경제 성장주의와 짝을 이뤄 교회의 급속한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당시 미국의 대표적 자기계발서 저술가이자 신학자였던 노먼 빈센트 필과 자기계발의 메시지를 신앙적 언어로 변안했던 로버트 솔러 목사의 영향을 받은 일군의 한국인 목사들은 물질적 성공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해석함으로써 교회의 양적 팽창에 기여하였다. 이로써 한국 기독교는 성인들에 대한 사회교육이 부실했던 개발 연대에 성공학의 세례를 베푼 공간이 되었다.¹⁶⁾ 이러한 분위기 하에서 양적 성장을 이룬 교회는 선망의 대상이 되고, 물질적 성공은 곧 신앙심의 척도로 평가되면서 성공지상주의가 교회의 지배적인 에토스로 자리 잡았다. 그 결과 양적 확장을 열망하는 교회와 물질적 성취를 욕망하는 개인의 자연스런 결합은 산업화 시대 한국교회와 신앙적 주체의 특성이 된 것이다.

III. 프랭클린 자서전 출현의 사회적 맥락과 의미

우리나라에 소개된 최초의 자기계발 서적은 벤자민 프랭클린의 *Autobiography* (1793)와 사무엘 스마일즈의 *Self-Help* (1859)의 번역본이다. 동아시아 삼국 중에서 서구문명을 가장 먼저 수용한 일본에서는 스마일즈의 *Self-Help*를 자조(自助)로 번역하였다. 일본어로 된 최초의 번역본 『서국입지편: 원명 자조론』을 필두로, 최고의 판매부수를 기록한 이제가 미 켄조의 『자조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번역본이 출판되었다. 중국에서는 양계초가 처음 번역하였는데 그는 무술(戊戌)변법운동이 실패로 끝나자 일본으로 망명한 후 자신이 발간한 『清議報』에 자조론의 번역본(1899)을 실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어와 중국어 번역본을 토대로 중역한 자조론이 『

16) 정해운, 『성공학의 역사』 (살림, 2004), 89.

朝陽報』 창간호(1906)에 실렸다. 그 후 1908년에 이르기까지 『대한매일신보』, 『서우』, 『대한학회월보』, 『소년』 등과 같은 당시의 대표적인 언론 매체에 자조담론이 활발하게 소개되었다. 책으로 된 최초의 번역본은 최남선의 『자조론 상권』(1916)인데, 원본 13편 중 6편이 실렸다. 당시에 주목할 만한 번역본은 난과 홍영후의 『청년입지편: 일명 자조론』(1923)이다.¹⁷⁾

1920년대 자기계발 담론 확산의 진원지였던 『자서전』을 처음 소개한 인물도 최남선이다. 그는 계몽잡지 『소년』에 “아메리카 명인 프랭클린 좌우명”¹⁸⁾을 게재한 후 커다란 주목을 받았다. 독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그는 프랭클린의 간략한 일대기와 13덕목 실천표¹⁹⁾를 부록으로 펴냈는데 이러한 시도는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그후 이시후의 『실업소설 부란극립전』(1911), 한성도서주식회사의 『프랭크린』(1921), 최연택과 김철호가 공역하여 『매일신보』에 25회 연재한 “프랑크린의 自敍傳”(1921) 등이 연이어 소개되면서 192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 자기계발 열풍이 일어났다.²⁰⁾

이 장에서는 1920년대 이르러 많은 판매부수를 내며 큰 인기를 끌었던

17) 나가쿠라 마사나오, 『서국입지편: 원명 자조론』(1871); 이제가미 켄조, 『자조론』(1908), 양계초, 『淸議報』(1899); 최남선, 『자조론 상권』(1918); 홍영후, 『청년입지편: 일명 자조론』(1923) 소영현, “근대 인쇄 매체와 수양론·교양론·입신출세주의: 근대 주체 형성 과정에 대한 일고찰”, 『상허학보』 18(2006), 8-9 참조

18) 『소년』, 1909년 4월. 5면-9면

19) 프랭클린 자서전에 기록된 13덕목은 절제, 침묵, 규율, 결단, 검약, 근면, 진실, 정의, 중용, 청결, 침착, 순결, 겸양이다. 식민지 조선에는 번역본에 따라 선택한 용어는 다르지만 그 근본의미는 원문과 상통하는 편이다.

20) 이시후, 『실업소설 부란극립전』(1911); 한성도서회사, 『프랭크린』(서울: 한성도서주식회사, 1921); 최연택/김철호, “프랑크린의 自敍傳” 『매일신보』 1921년 11월 8일자. 1930년대에도 프랭클린의 자기계발 덕목들이 지속적으로 소개되었다. 대표적인 것은 이홍로, “프랭클린의 십삼계 「린드버익」의 품성표”, 『동아일보』, 1936년 1월 11일자; 백당, “위인의 소년시대, 프랑크린 <속>”, 『동아일보』, 1936년 1월 26일자.

벤자민 프랭클린의 『자서전』에 주목하면서 이 책이 192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 지닌 의미와 효과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먼저, 18세기 미국사회에서 『자서전』이 지닌 의미와 효과, 그리고 텍스트의 구성을 살핀 뒤, 192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 『자서전』의 번역 및 소비와 관련하여 기독교가 자기계발문화와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규명한다.

1. 18세기말 미국에서의 프랭클린 자서전의 의미와 효과

벤자민 프랭클린(1706-1790)의 공적 이력은 미국의 정치가·외교관·과학자·저술가·신문사의 경영자·대학설립자·펜실베이니아 총독·헌법 제정위원 등 무척 화려하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는 점은 가난을 물려받았지만 철저한 자기관리와 자기계발로 큰 성취를 이룬, 18세기 미국의 대표적인 자수성가의 이미지다. 『자서전』에는 인격완성을 향한 그의 자기계발 욕구가 잘 드러나 있다.

이 무렵 나는 도덕적으로 완벽해지겠다는 무모하고도 어려운 계획을 마음 속에 품고 있었다. 어떤 경우라도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삶을 살고 싶었다. 타고난 것이든 친구들 때문에 얻은 것이든 나쁜 성향이나 습관이 있다면 모두 정복하고 싶었다...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것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되겠다는 신념만으로는 실수를 막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늘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행동을 하기 위해선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들여야 했다.²¹⁾

『자서전』에 따르면, 그는 어린 시절에는 매우 궁핍하여 정규학교를 제대로 이수하지 못하였고, 열 살부터 밥벌이를 위해 잡일을 하다가 12세에

21) Benjamin Franklin, *(The) autobiography of Benjamin Franklin*, 이정임, 『프랭클린 자서전』(서울: 한문화, 2015), 139.

인쇄소 견습공이 되었다. 인쇄공 프랭클린(B. FRANKLIN PRINTER)라고 서명할 만큼 자신의 첫 직업을 ‘소명’으로 알고 일에 충실했으며, 꾸준한 독서를 통해 만난 옛 현자들을 본받고자 최선을 다했다. 매일 시간을 정해두고 읽기와 쓰기에 힘써 훗날 유려한 문장가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음주가무를 멀리하는 등 금욕적인 생활습관을 몸에 각인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완성시켜 나갔다.

나는 한 주에 한 덕목씩 집중하여 실천하기로 했다. 첫째 주에는 ‘절제’에만 집중해서 아주 작은 잘못이라도 피하려고 했고, 다른 덕목들은 보통 때 수준으로 지켰다. 그리고 저녁마다 그날의 잘못은 꼭 표시했다. 첫 주에 ‘절제’라고 표시된 칸에 가만 점이 하나도 없이 깨끗하다면 그 덕목은 완전히 몸에 익었고 반대되는 습관은 약화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다음 덕목까지 포함해서 두 줄 모두 깨끗하게 만들려고 노력했다... 발의 잡초를 뽑을 때도 무리해서 한 번에 다 뽑지 않고 한 구역을 끝내고 다음으로 옮겨가는 것처럼 나도 한 줄 한 줄 깨끗해지는 표를 보면서 그만큼 덕을 익혔음을 기뻐하게 될 것이다.²²⁾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 인격완성에 도달하려는 그의 철저한 노력의 원천을 사람들은 청교도 윤리에서 찾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자기계발로 더 나은 자기가 된다는 개념은 어거스틴에서 시작된 전통적 신학의 인간관과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

어거스틴에서 비롯된 전통신학에서의 인간은 non posse non peccare, 곧 죄 짓지 않을 자유가 없기 때문이다. 어거스틴의 인간관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아 아닌 자기를 향한 자아 중심적 욕구로 인해 구원에서 멀어진다. 종교개혁 신학 전통에서는 철저히 타락한 인간의 구원은 오직

22) 위의 책, 142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전적인 하느님의 주권과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는 칼뱅주의 예정론의 전제는 자기계발로 인격적 완성을 소망하는 자기계발적 인간관과는 대척 지점에 있는 셈이다.

그런데 예정론의 효과에 대한 막스 베버의 해석은 자기계발적 주체 탄생의 여지를 열었다. 그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의 친화성을 설명하면서 예정론을 매개 고리로 설정하였기 때문이다. 베버 테제를 잠시 살펴보자. 칼뱅의 이중예정론에 따르면, 구원은 인간의 영역 밖인 하느님의 주권에 속하며 오로지 하나님만이 구원받을 자인지 멸망당할 자인지 아신다. 자신의 구원여부를 모르는 교인들은 심리 불안을 겪게 되고,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과정에서 금욕주의를 실천한다. 구원받은 자들의 외적인 삶의 태도는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소명의 식으로 세상의 의무에 최선을 다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란 검소, 정직, 근면, 성실의 덕목을 실천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어진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계산적이고 합리적으로 실행하는 자세를 포함한다. 이러한 세속적 금욕주의의 실천은 자본주의 정신의 형성으로 이어져 결국 자본주의를 위한 본원적 자본축적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베버에 의하면 프랭클린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한 범례적인 인물로, 그의 높은 인기는 세속적 성공과 도덕적 완성의 모범적 결합에 있다.²³⁾

『자서전』의 배경이 되는 18세기 초 미국사회는 대각성운동(The Great Awakening)의 열풍과 계몽주의 사조의 확산으로 특징지어진다. 당시 교양을 갖춘 대부분의 시민은 과학, 역사, 정치 이외의 교회활동과 신앙생활에는 등한시 하였고, 프랭클린도 종교보다는 계몽주의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목사의 설교는 신학적인 논쟁이나 장로교의 교리에 대한 설명뿐

23) Max Weber,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167-332.

이어서 굉장히 건조하고 지루했으며 유익하지도 않았다. ...(목사는 청중들을) 훌륭한 시민이 아닌 장로교 신도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았다.”²⁴⁾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그는 당대의 종교적 분위기에 비판적태도를 지녔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왔던 부모세대와 달리 청교도 2, 3세들의 종교적 열정은 식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냉담한 분위기는 대각성운동을 촉발했다. 대부분의 연구자는 대각성운동의 원인을 18세기 초 미국사회의 불안정에서 찾는다. 18세기 초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로 정치적인 불안정 상태가 지속되었고, 유럽에서 밀려온 주변인들은 익숙지 않은 환경에도 가족 부양을 위해 정착지를 찾아 유랑하였다. 미개척지를 떠도는 도중에 원주민을 해치는 등 도덕적 종교적 감수성은 결여되었다.²⁵⁾ 그러나 보스턴 대화재, 천연두 만연 등의 재해가 잦아지자, 이를 하나님의 회개촉구의 사건으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조지 화이트필드²⁶⁾와 조나단 에드워즈로 대표되는 순회부흥 목사들이 대중에게 큰 호소력을 발휘하였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움을 얻는다”는 칭의론에 입각한 설교로 폭발적 인기를 얻었으며, 칼뱅주의자였던 조지 화이트필드는 영국과 미국을 넘나들며 깊은 영성을 일깨웠다. 순회설교자들은 1720년경부터 약 30여 년간 활동하면서 미국인의 신앙 행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자서전』에는 당시의 분위기가 묘사되어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화이트필드) 목사가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나타난 주민들의 행동 변화였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종교에 별 생각이 없거나 무관심했

24) B. Franklin, 『프랭클린 자서전』, 145

25) Jennifer Graber, *The furnace of affliction: prisons & religion in antebellum America* (Capel Hill, N.C.: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11), 73-80.

26) George Whitefield (1714-1770) 영국의 감리교회 전도자였으나 신학적으로는 칼뱅주의에 기울어있었으며 그의 영향은 18세기의 영미지역의 신앙적 각성에 깊이 미쳤다.

던 사람들이 갑자기 신앙심으로 가득 찬 것처럼 행동했다. 저녁에 시내의 거리를 걷다보면 집집마다 찬송가 소리가 흘러나왔다.²⁷⁾

그와 친분이 깊었던 화이트필드의 영향력은 커져갔지만, 프랭클린은 대각성운동으로 대변되는 대중적 신앙이나 엄격한 칼뱅주의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다. 프랭클린은 “그(화이트필드 목사)가 나를 기독교인으로 만들어달라는 기도를 하기도 했지만 그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믿을만한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다”²⁸⁾고 기록할 정도였다. 또한 『자서전』에서는 자신이 장로교 교육을 받고 자랐지만 신의 영원한 뜻, 선민사상, 영벌 같은 교리를 이해하기 어렵거나 의심스러웠다고 고백한다. 심지어 “일요일은 공부하는 날로 정한 터라”²⁹⁾ 예배참석마저 중단할 정도였다.³⁰⁾

프랭클린은 청교도 가정에서 성장했지만 전통적인 청교도 교리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지인들과도 신앙 문제로 자주 충돌하였다. 그는 믿음을 강조하는 신앙생활보다는 근면성실하고 합리적인 생활을 선호했다. 모든 일에 하느님의 뜻을 묻지 않고도 정직하게 근검절약하는 행위 자체에 도덕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믿었던 철저한 계몽주의자였다. 그러나 『자서전』에서는 그가 대중적 신앙형태는 거부했으나 기독교 믿음체계 전부를 거부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종교적인 원칙을 모두 부정한 것은 절대 아니었다. 신은 존재한다는 것, 신이 세상을 창조했고 섭리로 다스린다는 것, 신이 가장 기뻐하는 봉사는 다른 이에게 선을 행하는 일이라는 것, 우리의 영혼은 불멸하며 모든 죄악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것, 덕행은 살아서가 아니라면 죽어서라도

27) B. Franklin, 『프랭클린 자서전』, 185

28) 위의 책, 187

29) 위의 책, 144.

30) 위의 책, 144.

반드시 보답을 받는다는 것 등은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았다. 나는 이런 것들이 모든 종교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종교 모두에 이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종교를 존중했다.³¹⁾

이처럼 그는 종교라 할지라도 비합리적인 권위에 대해서는 거부했지만, 청교도의 생활 덕목은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다. 검소한 차림새, 음주가무와 거리두기, 외관상의 절제력과 근면성이 묻어나는 일상생활 등은 그에게서 발견되는 전형적인 청교도의 생활 태도이다.

프랭클린은 13개의 덕목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을 실험대상으로 삼았으며, 습관을 교정하기 위하여 정교한 플래너(planner)를 고안하였다. 자기계발의 수단인 플래너는 일생 동안 그를 관리하고 교정하며 보다 나은 자기에게로 도달하게 하는 사다리였다. 그는 작은 수첩에 각 페이지마다 가로로 요일별 7칸, 세로로 13항목을 나타낸 13칸을 그린 플래너를 자기계발의 매개로 사용하였다. 각 항목에 해당하는 잘못이 있을 때마다 점을 그려 넣는 식으로 자신을 향상시켜 나갔다. 이는 자기계발 실천에서 가장 중요한 철저한 시간관리를 위하여 하루 24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어 계획을 세우고 빈틈없이 체크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이 작은 공책은 오늘날 자기계발적 주체들이 사용하는 기본 아이템인 ‘프랭클린 플래너’의 모태다. 그가 고안한 작은 수첩이야말로 자기계발의 핵심인 자기관리의 유용한 발명품이 되었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곧 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와 직결된다. 자기관리는 자기감시와 자기규제, 그리고 자기훈련 과정을 포괄하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자기존중의 태도를 체화하는 데 있다. 자기계발의 각종 프로그램은 자기자신의 ‘교정과 변형’을 통해 자기를 보다 잘 관리하고 외부의 상황과 운명을 부분적으

31) 위의 책, 144.

로 통제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갖게 된다고 강조한다.³²⁾

이러한 그의 자기계발의 기술은 청교도 신앙과 계몽주의 양쪽에 뿌리 내리고 있다고 보는 게 맞다. 『자서전』에는 ‘믿음 좋은’ 신앙인의 죄의 고백은 없지만, 검소하고 절제된 생활습관을 철저히 준수하는 근면성실한 청교도의 전형성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계발서의 일종인 그의 『자서전』 원본은 모두 4부로 구성되어 있다. 기술시기 등을 미루어 볼 때 처음부터 체계를 세워서 집필한 것 같지는 않다. 원본의 개략적 구조는 다음과 같다. 1부는 24세(1730년)까지의 삶을 1771년에 기록하였고, 곤궁함 속에서도 삶의 목표를 세워 용맹정진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2부는 1부가 끝난 시점으로부터 약 1년간의 생활을 1784년에 기록하였다. 여기에는 신앙관련 이야기와 더불어 도덕적 완성을 위한 13개 실천항목이 제시되어 있다. 3부는 1731년-1757년까지의 삶으로 필라델피아 자택에서 죽음을 맞이하기 반 년 전(1788-1789년)에 쓴 글이다. 4부는 1757년 말에서 1762년까지의 삶을 기록한 것으로 집필 시기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192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는 프랭클린 자서전의 원본 전부가 번역된 적이 없다. 어떠한 부분이 선택되어 번역되고 또 어느 부분이 번역에서 제외되었는지를 두고 해석의 갈등이 있다. 여기에 대해선 결론에서 다루겠다.

2. 20세기 초 식민지 조선에서의 『자서전』 번역의 의미와 효과

식민지 조선에서 번역된 프랭클린의 『자서전』은 단편적인 번역문이 많다. 지금까지 알려진 단행본만 해도 4권이나 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프랭클린의 『자서전』은 자기계발서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당시의 열악한 출판 상황과 시장의 협소성을 감안할 때, 어떤 특정 서적에 대한 번역본

32) 이숙진, “신자유주의시대 한국기독교의 자기계발담론”, 137.

이 많았던 것은 그만큼 그 책이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한다. 이는 이 시기에 자기계발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컸음을 의미한다.

192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 자기계발담론을 열렬히 소비한 자들은 누구이며 자기계발문화의 불을 일으켰던 진원지는 어디인가? 서구에서도 그러했듯이 식민지 조선에서도 자기계발의 문화는 기독교 공간과 친연성이 있다. 우선 1920년대 자기계발 관련서적을 번역한 이들은 주로 계몽적 기독교인이다. 『자서전』과 『자조론』 번역판 중에서 높은 판매부수를 차지한 것은 최연택과 홍영후의 번역판인데 이들은 당시의 대표적인 계몽적 기독교인이다.³³⁾

특히 최연택은 1920년대 자기계발담론을 확산시킨 주역이다. 그가 번역한 『자서전』은 국한문혼용의 다소 복잡한 문체와 게재한 시기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번역본보다도 대중의 큰 호응을 받았다. 호응의 1차적 원인은 그의 번역물이 연재된 『매일신보』의 두터운 독자층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³⁴⁾ 번역자로서의 최연택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다. 그는 인쇄소와 출판사를 직접 운영하면서 자기계발 관련 서적을 번역하고 우리 실정에 맞게 번안하며 자신의 생각을 저술하는 방식으로 대중과 소통하였다. 최연택은 자기계발을 통해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데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기독교적 덕목을 실천하고 체계적으로 목표를 세워 스스로 새로운 삶을 창조한 입지전적 인물을 주로 소개하였다.³⁵⁾ 『매

33) 최연택(1895-?)은 독실한 성결교 교인이자 계몽지식인으로서 직접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자기계발 관련 글들 다수 집필하고, 번역하였다. 홍영후(1898-1941)는 새문안교회 초창기 교인이자 음악가로 홍난파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의 더 자세한 신앙이력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조하라. 최희정, “홍난파 가문의 기독교 수용과 ‘青年’ 홍난파,” 『서강인문논총』 29(2010), 69-106.

34) 대중들의 호응은 그의 번역이 실렸던 매일신보의 두터운 독자층이 한 몫 했을 것이다. 최남선의 번역본이 실린 『소년』은 창간호가 20여부 발간되었고 최고 부수가 200여부에 불과하여 독자층이 매우 얇았다. 이에 비해, 『매일신보』 경우는 2만 4천 부 가량 발행될 정도의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었다.

일신보』에 기고한 “근면하라”, ‘의뢰심을 발거(拔去)하라’, ‘촌음을 시경(是競)하라’, ‘실패에 퇴굴(退屈)치 말라’ 등의 글이나, 그의 저서 『세계일류사상가논문집』에 수록된 “성공론,” “포이티튜드(Fortitude),” “『커레-지』(Courage),” “자조론” 등의 제목이 지시하듯, 그는 성공학과 자조론의 소개를 통해 자기계발 담론을 확산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최연택의 자기계발 담론은 그의 기독교신앙과 깊게 연동되어 있다. 성결교 잡지 『활천』에 실린 간증에 따르면, 그는 소년시절부터 아현감리교회를 다녀 기독교문화에 익숙했다. 그러나 심한 병을 앓고 난 직후인 1914년부터 아현성결교회로 옮겼는데 여기에서 신앙적 정체성이 확고해진 것으로 보인다.³⁵⁾ 그의 신앙 이력은 출판 이력에서 잘 드러난다. 독실한 신앙인이 되기 직전인 1914년만 하더라도 유교 이념에 충만한 한문소설 『김태자전』을 번역하여 연재했다. 그러나 회심 후에는 장편소설 『죄악의 씨』(1922)³⁷⁾와 같은 신앙서적을 쓰는 한편, 『자서전』 번역 및 자기계발 관련 저술활동에 힘썼다.

이 밖에도 기독교와 자기계발문화의 친연성의 증거는 많다. 기독교 청년운동 단체인 YMCA 기관지 『청년』에는 1923년 한 해 동안 “청년의 수양훈(修養訓)”(半島山人)이라는 제목을 지닌 글의 연재를 비롯하여, “정신부터 자기를”(김영제) “수양의 가치와 사상의 정리”(公優生) “성공의 비

35) 다수의 굵직한 저술서적과 당대의 대표적 매체였던 『동아일보』 『매일신보』 및 『신천지』 『수양』 등에 실린 글들은 그 결과물이다. 그의 자기계발사상의 집대성이라 할 『世界一流思想家論文集』에는 “成功論” “스토이씨즘(Stoicism)論” “포이티튜드(Fortitude)” “『커레-지』(Courage)” “自助論” “靈感(Inspiration)論” 등이 있다.

36) 그의 간증은 “사망에서 생명으로”라는 제목으로 세 번에 걸쳐 연재되었다. 『활천』 제2권 제2호 (1924, 1-3), 45-46, 110-12, 165-67.

37) 한국 현대장편소설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최연택의 소설이다. 부패한 권력에 비판적이었던 주인공이 독실한 기독교 신앙인으로 거듭나면서, 인간적으로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신앙의 힘으로 용서한다는 내용이다. 기독교적 신앙이 잘 표현된 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겉표지 제목은 ‘사회소설(社會小說) 죄악(罪惡)의 씨’, 서두에는 ‘죄악의 종자(罪惡의 種子)’로 표기되어 있다.

결”(조정우) 등과 같은 글이 지속적으로 등장한다. 당시에는 자기계발이 근대적 주체의 정신 개조나 수양 문제와 관련되어 언급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 글들은 성공한 삶의 비전을 제시하며,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품성이나 자질을 함양하는 자기계발의 덕목을 제시하고 몸에 익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 기관지가 매호 발간될 때마다 거의 항상 자기계발에 관련한 주제가 등장하는 것을 미루어보아 독자들의 높은 호응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면 왜 192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는 미국인의 사랑을 받은 18세기의 인물의 『자서전』이 회자되었으며, 당시 조선인들은 그 인물의 어떤 점에 매료되었던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자서전』 번역의 의미와 효과가 드러날 것이다.

당시 프랭클린이 소비되는 이미지를 보면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추론할 수 있다. 자서전 전문번역을 시도했던 한성도서주식회사는 책 선전문구로 ‘빈한(貧寒) 출신의 대성공자’라고 내걸었다.³⁸⁾ 『자서전』을 열렬히 소비한 독자들은, 한때는 영국의 식민지였으나 어느 덧 대표적인 문명개화국이 된 미국이 가장 사랑하는 미국인, 프랭클린을 통해, 식민지인의 암울한 현실과 경제적 궁핍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을 발견한 것은 아닐까? 어린 나이에 생업에 종사해야 할 정도로 몹시 가난했던 한 소년이 끊임없는 자기계발로 자수성가하고, 마침내 미국이 귀족 사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인물이 된 이야기는 유사한 처지의 식민지 독자에게 현실탈출의 동아줄로 여겨졌을 수 있다.

식민지 조선의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프랭클린이 고안하여 공

38) 이 출판사는 1921년부터 ‘번역 전기 총서’를 기획, 출판하였고, 프랭클린에 대한 선전은 여타 영웅 소개와는 사뭇 다르다. 한성도서주식회사에서 발행된 번역 전기물에 관해서는 김성연, “한성도서주식회사 출간 번역 전기물 연구-출판 정황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30(2010) 참조.

유했던 습관 개조와 계획적인 시간활용의 노하우였다. 식민지 근대가 진행되던 1920년대의 한국사회는 여전히 전근대적 시간관념이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기독교는 선교 초기부터 전통적 시간관을 정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고 비판해 왔다. “우리 한인의 풍습은 정밀하지 않아서…약속할 때 만나는 시간을 내일 아침이라 하는데, 아침은 날이 밝으면서부터 정오까지라 - 이를 어찌 시간이라 하겠는가”³⁹⁾라든가 “한가한 시간이 많고, 오늘 못하면 내일로 미루는 습관이 있다”⁴⁰⁾ 혹은 “세계에서 그들만큼 잠을 좋아하는 국민도 없다. 그들은 매우 불규칙하게 생활한다”⁴¹⁾와 같은 말은 모두 한국인의 ‘느슨한’ 시간관념과 그에 따른 ‘게으른’ 생활에 대한 비판이다.

근대기독교는 전통적 시간의 의미와 실천을 해체하고 근대적 시간으로 대체하려는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프랭클린의 플래너는 근대적 시간을 몸에 각인하는데 유용한 도구였다. 촘촘히 체계적으로 나뉜 프랭클린의 플래너는 정확성과 엄밀성을 특징으로 하는 근대적 시간관에 기초해 있다. 그의 핵심교훈이 대부분 시간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자기계발 테크닉의 필연적 귀결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명망가가 되기보다는 “도덕적으로 완벽해지겠다는 바람”으로 프랭클린이 제안한 13덕목 표는 신앙적 성찰의 장치를 통해 자신의 언행을 관찰, 교정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13덕목에서 우리는 청교도의 이상적 인간상과 근대적 인간상 혹은 근대적 가치 사이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미국문학 연구에서도 프랭클린의 청교도 덕목과 근대화의 친연성에 대해 말한다. 문명의 근대를 향한 매순간의 성실한 노력과

39)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 풍습은 나라의 큰 병폐”, 『황성신문』, 1901년 10월 3일자.

40) Horace. N. Allen, *Things Korean*, 신복룡, 『조선건문기』 (서울: 집문당, 1999).

41) Savage-Landor, Arnold H., *Corea or Cho-sen*, 신복룡,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 (서울: 집문당, 1999).

더 나은 세계로의 신앙적 표현 등, 출발부터 청교도주의는 중세로부터의 해방된 근대적 흐름에 발맞춘 측면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⁴²⁾

그런데 이 13덕목은 초기 한국기독교가 수신항목을 통해 교인들의 근대적 몸 만들기를 꾀하였던 기획과 중첩된다. 수용 초기부터 기독교공간은 근대인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프랭클린의 13덕목 중 '정결'이 근대적 주체의 형성과 맞닿아있듯이, 초기 한국교회에서 유통되던 위생담론은 근대적 몸 만들기 기획이라 할 수 있다. 스크랜턴 대부인의 '죄로부터의 구원뿐 아니라 불결함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설교⁴³⁾와 몸과 주변환경의 위생을 강조하면서 이를 하느님의 성전이기에 특히 정결하도록 노력해야한다는 교계신문 기사⁴⁴⁾는 교회공간에서 위생담론이 어떻게 신앙적 언어로 번안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한국기독교의 근대적 몸 만들기 기획에는 술, 담배 등의 기호식품 통제에서부터 경제관념, 시간관리, 그리고 예배당을 비롯한 공공장소에서의 '행동의 절제'까지 포함하고 있다. "세계의 문명한 나라 사람들은 자기 몸의 누추한 것을 다른 이들에게 보이지 아니한 고로 ..." 예배당 내에서의 설교 시에 옆 사람과의 잡담이나 큰 기침, 하품, 큰 소리로 성경 따라 읽기, 창문 열고 침 빨기 등을 금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칙들은 절제 담론인 동시에 일종의 신체통제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다.⁴⁵⁾ 문명화된 인간,

42) Reising Russell, *The Unusable Past: theory and the study of American Literature*, (New York: Methuen, 1986), 50.

43) Mary F Scranton, "Missionary Work Among Women," *The Korean Repository*, (Aug-Sept, 1898), 313-318.

44) "사설: 집안을 정결케 할 것," 『신학월보』, 1904년 9월 4일자, 49. 원문은 다음과 같다. "위생이란 것은 몸을 정결하게 씻으며 더러운 옷을 입지 말고 음식을 절도있게 먹는 것뿐 아니라 집안을 정결하게 하는 데 있다. ...진리를 깨달은 형제들아 어찌 예전 구습을 고치지 아니하고 집안을 더럽게 하리오. ... 리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 특별히 정결하게 함을 힘쓸지이다."

45) "레베당 규칙: 레베당 안에서 현화하지 말 일," 『신학월보』 7권 2-3호, 1909년.

근대적 인간이 탄생하는 과정이 생활환경에서의 예절을 신체에 각인하고 내면화하는 과정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지적처럼,⁴⁶⁾ 예배당에서의 규칙은 물론 신성한 공간에 대한 예절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근대적 매너를 몸에 내면화시키는 장치이기도 하다. 이러한 한국기독교의 기획의 출발점은 선교사의 청교도적 습관과 연결되어 있다.

근대초기 동아시아 사회변동을 주목한 아더 브라운(A. J. Brown)은 개항 후 초기 25년 동안 내한한 선교사들이 거의 모두 청교도 신앙을 가졌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처음 뉴잉글랜드에 정착했던 청교도들처럼 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을 뿐 아니라 춤추거나 담배 피우거나 노름하는 것을 죄로 여겼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려면 절대로 하지 못할 그런 행동으로 본 것이다.⁴⁷⁾ 이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자기계발실천의 신앙적 버전이라고 하겠다. 대부분의 선교단체나 선교사들이 그러하듯 이들도 자신의 청교도 윤리와 신학적 성향을 선교지에 전했다. 그 결과 초기 선교사들은 절제를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윤리적 척도로 가르침으로써 술과 아편의 유통을 막고, 노름을 금지시키며, 순결의 수준을 높이 설정하였다. 개신교의 몸 담론에서는 몸이 ‘성전’이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간주되기에 몸을 해치는 모든 욕망과 행위는 절제에 의해 철저하게 통제되어야 했다. 이러한 몸 담론과 절제 담론은 베버가 칼뱅주의에서 발견한 ‘현세적 금욕주의’를 연상시킨다.

『자서전』을 통해 접한 13덕목은 신용과 합리성에 기초한 인간관계가 한층 중요해진 근대사회에서의 성공된 삶을 보장하는 자원인 셈이다. 이에 대한 식민지 조선의 독자들의 적극적 호응을 통해 근대로 나아가려는

46) Norbert Elias, *Über den Prozess der Zivilisation*, 박미애, 『문명화과정』(서울: 한길사, 1999).

47) Arthur Judson Brown, *The Mastery of Far East*, (New York: Chales Scribner's sons, 1919), 540.

이들의 열망을 짐작할 수 있다. 한성도서주식회사에서 발간한 본문 뒤에는 “프랭클린전에 대하여”라는 소개글이 있다. 거기에는 자서전 번역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어린학생 여러분... 다른 영웅의 전기를 읽을 때와 같이 가슴이 뛰며, 혈관을 돌아다니는 피가 더 뜨거워지며, 변전무쌍한 운명에 웃고 울고 하는 활극적 느낌을 프랭클린의 일생을 읽을 때에는 아무리하여도 우리는 느낄 수가 없었다 ...우리는 수양에 있는 몸인 때문에 소낙비의 본을 받으려하는 것보다, 적으나마 끊지 아니하고 내리는 비의 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⁴⁸⁾

한 순간 속 시원하게 내리는 소나기가 아니라 “끊지 아니하고 내리는 비”를 본받으라는 말의 함의가 무엇일까. 한 순간의 험기보다는 매 순간의 수양을 강조하는 속뜻은 무엇일까. 중단 없는 노력으로 자신도 모르게 몸속에, 일상 속에 스며든 덕목들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라는 속담처럼, 마침내는 식민체제를 넘어서는 은밀한 방도가 될 수 있다는 은유로 보인다.

식민지 조선의 자기계발 문화를 견인한 『자서전』과 『자조론』의 번역을 근대적 의미의 입신출세주의의 통로라고 평가한 연구들이 있다. 역사학계는 『자서전』번역이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번역자들의 협력 논리를 정당화시켜 주었다고 평가한다. 그 증거로 제시되는 것은 『자서전』번역본 중 어느 하나도 완역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⁴⁹⁾ 즉 사적 경험담과 입신양명의 성공담이 기술된 1부와 2부만 번역되고, 미국의 독립운동가나 정치지도자로서의 면모가 담겨있는 4부는 한 번도 번역되지 않았다는

48) 김억, “프랭클린전에 대하여” 『프랭크린』 (서울: 한성도서주식회사, 1921).

49) 최희정, “1920년대 이후 성공주의 기원과 확산,” 『한국근현대사연구』, 76(2016), 187-216.

것이다. 요컨대 식민지인이라는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프랭클린에 부착된 식민지 미국의 독립과 건국 사업이라는 역사적, 정치적 의미는 탈각시키고, 그저 근면성실하게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여 성공한 인물의 이미지만 유포했다는 것이다. 이는 번역 텍스트의 선택과 배제에서 『자서전』 번역자의 ‘불온한 의도’를 추론한 것이다. 나아가 기존연구에서는 당시의 자기계발 담론이 근면성실을 강조하고 개인의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강조함으로써 식민당국에 순응하는 주체를 생산했다고 강조한다. 그로 인해 자기계발 담론은 일본 제국주의 체제가 수월하게 작동하는데 공헌했으며, 자기계발 문화를 선도한 지식인들이 식민당국의 협력자로 변신한 것은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단언한다.⁵⁰⁾

그러나 『자서전』 4부의 탈각이 번역자의 의도적 행위였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프랭클린 자신이 미완성한 채로 작고했고, 미국을 비롯한 서구사회에서도 4부는 뒤늦게 발간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일본이나 중국을 거쳐 중역되는 식민지 조선의 출판사정, 총독부의 검열, 그리고 높은 문맹률을 고려한다면 4부의 탈각을 번역자의 의도로 단언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훗날 번역자들의 변절의 단초를 자기계발 서적의 번역에서 찾는 것도 결과론적 해석일 수 있다. 이들이 자기계발 서적을 번역한 시기는 개조에 대한 열망이 강했던 1920년대 전후였다는 점, 일제강점 이후에는 위인 전기류에 대한 총독부의 제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번역을 시도한 점, 그리고 『자조론』 번역 이후 수양동우회 사건의 고초를 겪은 홍영후나 최연택의 신앙이력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자기계발 담론 유포에서 변절의 징후를 찾는 것은 너무 성급한 시도로 보인다.

50) 역사학의 최희정과 근대문학 연구자 소영현이 대표적이다.

IV. 나가는 말

이 글은 자기계발문화에 내재한 개인의 강조와 사회구조적 인식의 결여라는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1920년대의 자기계발문화에서 이기성의 발현이 아닌 공조를 향한 자조, 공공성을 위한 자기계발의 가능성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육영공원 교사로 내한하여 근대교육자로 활약한 헐버트가 “우리는 매일 거리를 쏘다니는 수 백 명의 청년들을 본다. 그들은 구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와 자극만 있으면 가장 유망한 청년들이 될 수 있을 것”⁵¹⁾이라고 보았던 그때와 『자서전』과 『자조론』에 공명했던 그 청년들의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삶의 길을 잃은 식민지 조선의 청년들이 『자서전』에 매료당한 것은 과연 입신양명의 신기루 때문일까? 프랭클린이 제공한 청교도적 실천항목들에서 새로운 사회 곧 근대화(성)에 도달하는 동아줄을 발견했기 때문일까?

앞서 보았듯이, 『자서전』 속에 등장하는 프랭클린의 자기계발에의 욕망은 공공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독립투쟁기가 아닌 소소한 사적 경험의 서사에도 공익적 정서가 깊이 스며들어있다. 그가 펴낸 『자서전』을 포함한 다양한 자기계발서는 시행착오 끝에 습득한 생활습관과 통찰력의 공유에 그 목적을 두고 있었다. 철저한 시간 관리와 자기 관리의 기술은 개인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지만 항상 공공성과 연계된 공익사업으로 이어졌다. 모두에게 유익한 ‘회원제 도서관 설립’이나 ‘프랭클린 스토브’의 특허권과 같은 수많은 발명품을 독점 수익으로 사유화하지 않음으로써 그는 공익을 우선시한 전형적인 청교도형 인물로 오늘날까지 기억되고 있다. 또한 수많은 자기계발 서적을 번역함으로써 1920년대 자기계발 문화를 이끌었던 최연택이 제시한 성공론도 눈앞의 사익에 머물지 말라는

51) Homer. B. Hulbert, *Korea Review*, (Seoul : Printed at the Methodist, 1903) April.

것을 핵심 메시지로 하고 있다.⁵²⁾ 요컨대 근대적 의미의 자기계발 문화를 촉발한 『자서전』 번역은 근대의 물결이 휘몰아쳐 들어오던 그 시절,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을 꾀하던 사회상에 공명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에 의미 있는 효과를 끼친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식민지 조선에서 자기계발 문화가 지니고 있던 한계를 간과하자는 것은 아니다. 윤리의 렌즈로 볼 때, 1920년대의 문화통치라는 시대적 한계 속에서 싹튼 자기계발 문화는 사회구조 혹은 지배체제의 문제를 간과한 채 개인의 개조에 머문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 자기계발의 문화의 진원지로 기독교공간이 역할을 하던 1920년대에는, 청년 지식층 사이에서 “입으로 사회주의를 말하지 않으면 시대에 처진 청년”⁵³⁾ 같이 여겨질 정도로 사회주의가 급속히 퍼져 나갔다. 당시 기독교공간에는 개인의 영혼구원과 부흥운동을 중시하는 흐름과 사회개혁과 사회운동을 중시하는 흐름이 공존했다. 사회개혁을 중시한 이들은 사회주의 진영의 반기독교운동을 개신교의 자기반성의 계기로 삼으면서 사회주의와의 접점을 모색하였다. 사회주의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접촉하고 바로 인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이 나오는가 하면,⁵⁴⁾ 사회주의자들이 반대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교인과 교회’이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인의 특성을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도 나왔다.⁵⁵⁾

기독교와 사회주의의 접점을 모색하던 기독교사회주의자들은 성서와 예수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따라서 그들은 구약성서의 희년과 약

52) 최연택, ‘成功의 秘訣’, 『매일신보』 1920년 6월 24일자; 26일자

53) 羅京錫, 空京橫事, 『조선지광』, (1927. 5), 76.

54) 전영택, “지도와 리해” 『기독신보』 1925년 12월 9일자.

55) 김경하, “반기독교운동에 鑑하여 우리 교인의 자성을 촉함” 『기독신보』 1926년 1월 13일자.

자보호법만이 아니라 신약성서의 초대교회 공동생활과 공동소유를 사회주의와 연결시키고 예수에게서 사회주의자의 모습을 발견하였다. 나아가 ‘진정한 사회주의자’라면 ‘세계일가주의’와 ‘일시동인’이라는 말로 대변되는 참된 우애와 평등의 정신을 주창한 ‘사회주의자 예수’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에 의하면 사회를 개혁하고 혁신하는 혁명가이자 일과 노동을 중시하고 모든 사람을 형제로 대하는 진정한 사회주의자인 예수의 길을 따라야만 ‘진정하고 고상한 사회주의’가 실현될 수 있고, 예수에 근거한 기독교 사회주의야말로 ‘진짜 사회주의’였다.

일제하의 대표적인 기독교 지도자 이상재는 적자생존과 우승열패를 강조하는 사회진화론적 사회현상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죄악된 상태’임을 지적하고, 불합리한 사회현실의 개조가 하나님의 뜻이며, 이런 사회 개조 활동에 기독교인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적극 나서야 할 것을 촉구했다.⁵⁶⁾ 당시의 사회개조론이 현실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구조에서 찾았다면, 자기계발 담론을 소비하던 이들은 역방향 곧 개인구원을 통한 사회구원, 혹은 공조를 위한 자조에서 해답을 찾았던 것이다. 1920년대 전후, “공익과 사익의 이해” “공익과 사익” “공익과 사익 물재생” 등의 글들은⁵⁷⁾ 공동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을 추구하면서도 물질적 풍요를 누렸던 프랭클린과 맞닿아 있다.

그 동안 우리 역사에 대한 윤리적 평가는 민족주의의 자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항일 대 친일이라는 이분법적 인식들은 윤리적 평가의 굳건한 기준이 된 적도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의 삶은 민족이라는 변수만이 아니라 성, 계급, 연령 등과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도 직조되었

56) 李商在, ‘上帝의 뜻은 如何하뇨’, 『百牧講演』2, (서울: 博文書館, 1921), 138. 김권정 재인용.

57) ‘公益과 私益의 利害’ 『皇城新聞』 1907년 8월 9일자; ‘公益과 私益’ 『每日新報』 1914년 2월 9일자; ‘公益과 私益 勿齋生’, 『每日新報』 1924년 9월 15일자.

다. 따라서 민족주의 담론의 회로에 갇히게 되면, 식민지 권력 이외의 지배담론과 협력하고 갈등하고 저항하는 가운데 형성된 다양한 삶의 결을 놓치게 된다. 식민지 근대성(colonial modernity)의 개념을 비롯한 근래의 문화연구는 항일과 친일의 구도 외부를 사유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이 글은 자기계발이라는 렌즈로 식민지 조선인의 욕망을 읽고자 했다. 특히 기독교 지식인에 의한 『자서전』 번역을 매개로 드러난 독자들의 욕망을 ‘자조’와 ‘공조’의 관계 구도 속에서 고찰하였다. 이들의 자기계발에의 욕망을 엄격한 윤리적 잣대로 비난하기 보다는 그들이 무엇을 수정하고 무엇을 넘어서기 위하여 『자서전』을 번역하고 소비했는지 질문함으로써 항일 대 친일, 체제 대 개인이라는 이분법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결을 포착하려 했다.

참고문헌

- 『동아일보』 『매일신보』 『기독신보』 『청년』
이시후, 『부란극립전』, 서울: 보급서관, 1911.
한성도서출판부 역, 『프랭크린』, 서울: 한성도서주식회사, 1921.
崔演澤, 『世界一流思想家論文集』, 서울: 文昌社, 1924.
洪永厚, 『青年立志編 - 名 自助論』, 서울: 博文書館, 1923.
김성연, “한성도서주식회사 출간 번역 전기물 연구.” 『상허학보』 30(2010), 223-262.
김성연, 『영웅에서 위인으로』, 서울: 소명출판, 2013.
서전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42(2010).
소영현, “근대 인쇄 매체와 수양론 · 교양론 · 입신출세주의: 근대 주체 형성 과정에 대한 일고찰.” 『상허학보』 18(2006).
최희정, “홍난파 가문의 기독교 수용과 ‘青年’ 홍난파.” 『서강인문논총』 29(2010), 69-106.
최희정, “1920년대 이후 성공주의 기원과 확산.” 『한국근현대사연구』, 76(2016), 187-216.
Foucault, Michel/ 이희원 역, 『자기의 테크놀로지』, 서울: 동문선.
Franklin, Benjamin/ 이정임 역, 『프랭클린 자서전』 서울: 한문화 2015.
Weber, Max/ 김덕영 역,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서울: 길, 2010.
Brown, A. J. *The Mastery of Far East*, New York: Chales Scribner's sons, 1919.
Graber, Jennifer, *The furnace of affliction: prisons & religion in antebellum America*, Chapel Hill, N.C.: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11.
Scranton, Mary F. “Missionary Work Among Women.” *The Korean Repository*. (Aug-Sept, 1898), 313-318.

논문투고일: 2017년 06월 30일

심사게시일: 2017년 07월 11일

게재확정일: 2017년 08월 04일

• 국 문 초 록 •

이 글은 192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 프랭클린 『자서전』이 자기계발 서적의 하나로서 번역되는 맥락과 그 의미를 당대 기독교의 사회적 존재방식과 관련시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 먼저 기독교의 역사에 나타난 자기계발의 계보와 근현대 한국사회의 자기계발 담론을 검토한다. 그리고 18세기 미국사회에서 프랭클린의 『자서전』이 어떠한 사회문화적 위상을 지니고 있었는지를 당시 미국 기독교의 성격과 관련하여 살핀다. 다음에는 192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 프랭클린의 『자서전』이 기독교 지식인에 의해 번역되는 과정과 그 의미를 ‘자조와 ‘공조의 관계 구도 속에서 검토한다. 이를 통해 식민지 시기 기독교의 공간에서 등장한 자기계발은 오늘날과 같은 신자유주의 시대의 자기계발 붐과는 상당히 다른 사회문화적 위상과 의미를 지니고 있었음을 밝힌다.

주제어: 프랭클린 『자서전』, 프로테스탄티즘, 식민지 조선, 자조, 공조
